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2

제 [] 선택

1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근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OO님께

보내 주신 편지는 잘 읽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또는 자연 안에 존재한다는 저의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은 신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유한한 양태이며,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 본성을 이성의 인도에 따라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 ①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정념에 초연해야 한다.
- ② 인격신을 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③ 자연의 인과 법칙을 깨달아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한다.
- ④ 이성을 온전하게 발휘하여 모든 감정을 제거해야 한다.
- ⑤ 만물에 대한 관조를 통해 삶의 필연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고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하의 해악(害惡)이다. 이 해악은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는 데서 발생한다. 모두가 아울러 서로 사랑하여[兼愛] 다른 나라 위하기를 자기 나라 위하듯이 한다면, 누구도 자기 나라를 동원하여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보기>

- ㄱ.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은 정의롭지 못하다.
- ㄴ. 비공(非攻)을 실천하여 천하의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
- ㄷ. 군사가 동원되는 어떠한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ㄹ. 친소(親疏)를 분별하는 사랑을 통해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며 영원하고 가장 완전한 선이다. 우리는 신의 은총을 통해 지상의 나라에서 벗어나 천상의 나라로 갈 수 있다.
을: 신의 존재는 운동에 의한 증명, 원인에 의한 증명 등의 방식으로 논증될 수 있다. 그러나 이성에 의한 진리는 불완전하므로 계시에 의한 초월적 진리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 ① 갑: 인간은 신이 창조한 악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② 갑: 천상의 나라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 ③ 을: 신앙과 이성은 구분되지만 모순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 ④ 을: 이성은 신의 존재 증명에 관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 ⑤ 갑, 을: 인간은 신의 은총 없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4.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우리는 일원상(一圓相)을 자각하고 도덕을 훈련함으로써 물질 세력의 항복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체 생명을 영원한 지상 낙원으로 인도해야 한다.

을: 우리는 한율님의 뜻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상을 교화해야 한다. 저마다 본래의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로잡아[守心正氣] 한율님의 성품을 거느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보기>

- ㄱ. 갑: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ㄴ. 갑: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종교적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
- ㄷ. 을: 한율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다름을 알아야 한다.
- ㄹ. 갑, 을: 신분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현세에서 실현해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5.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외적인 일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자신의 판단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apatheia]를 갖게 될 것이다. 을: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된다면, 단순한 음식도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은 쾌락을 준다. 참된 쾌락은 마음에 불안과 몸에 고통이 없는 상태[ataraxia]이다.			
(나)	<p><범례></p> <table border="1"> <tr> <td>A: 갑만의 입장</td> </tr> <tr> <td>B: 갑, 을의 공동 입장</td> </tr> <tr> <td>C: 을만의 입장</td> </tr> </table>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동 입장	C: 을만의 입장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동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 ㄱ. A: 인간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ㄴ. B: 자연의 법칙을 파악하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
- ㄷ. B: 마음의 평온함을 얻으려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ㄹ. C: 정신적인 쾌락보다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이자율과 투자 규모가 최적의 수준이 유지되도록 저절로 조정된다고 보는 자유방임주의적 이론은 옳지 않다. 정부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과 국내의 고용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투자 계획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을: 정부의 역할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생적 시장 질서를 보장하고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일에 머물러야 한다. 정부 주도의 경제 계획은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람들에게 노예의 길로 이끌 것이다.

- ① 갑: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 ② 갑: 정부는 적극적 시장 개입을 통해 완전 고용을 실현해야 한다.
- ③ 을: 정부는 모든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 ④ 을: 정부는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의 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갑, 을: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

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덕과 악덕 사이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덕과 악덕이 일으키는 인상이나 정서에 의해서이다. 도덕성은 판단되기는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을: 도덕적 행위들은 경향성에서가 아니라, 의무로부터 행해지는 것이다. 아무런 경향성 없이, 오로지 의무로부터 그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는 비로소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갖게 된다.

- ① 갑: 인간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 ② 갑: 도덕적 선악은 행위가 일으키는 정서를 통해 구별된다.
- ③ 을: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 ④ 을: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여 도덕 법칙을 실천해야 한다.
- ⑤ 갑, 을: 선한 행위를 실천하려면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

8.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공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단결하여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 지배 계급이 되어 넓은 생산 관계를 폐지하면 궁극적으로 계급도 폐지될 것이다. 또한 공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적 소유는 폐지되어야 하며, 그 대신에 모든 생산 수단의 공동 이용이 실현되어야 한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이상 사회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진다.		✓			✓	✓
이상 사회는 계급과 국가가 모두 소멸한 상태이다.			✓		✓	✓
이상 사회 실현의 필수 조건은 생산 수단의 공유이다.			✓	✓	✓	
이상 사회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협력을 통해 실현된다.		✓		✓		✓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 ⑤ 무

9. (가)를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①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중생이 자신의 본성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단박에 깨달았더라도[頓悟], 오랫동안 누적된 그릇된 인식과 습기(習氣)는 바로 제거되지 않는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수행[漸修]이 필요하다.
(나)	<p>스승님, 점진적인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p>  <p>①</p> 

- ①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아 나가야 하네.
- ② 자아의 불변성을 자각하며 경전 공부를 해야 하네.
- ③ 불성(佛性)을 형성해 가며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하네.
- ④ 내적 공부[禪]를 버리고 외적 공부[教]에 몰두해야 하네.
- ⑤ 무명(無明)을 수행의 목표로 삼아 습기를 제거해야 하네.

10.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어떤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들이 도덕적 의무감에 구애되지 않고 그중에 하나를 더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질적으로 더욱 우월하고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을: 한 행위가 가져다주는 쾌락과 고통을 일곱 가지 기준으로 측정하고 그 총량을 비교하여 차감해 보라. 만약에 쾌락이 남는다면 일반적으로 그 행위는 개인 또는 사회에 좋은 경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

- ㄱ. 갑: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ㄴ. 갑: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가 아닌 동기로 판단된다.
- ㄷ. 을: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쾌락은 양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 ㄹ. 갑, 을: 공리의 원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3

11.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을: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지식에 따라 유익하거나 유해하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영혼을 수련함으로써 참된 앎을 깨달아야 한다.

<보기>

- ㄱ. 갑: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각 개인에게 있다.
- ㄴ. 을: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유덕하게 행동할 수 있다.
- ㄷ. 을: 진리는 상대적이므로 다양한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
- ㄹ. 갑, 을: 이성보다 감각적 경험을 통해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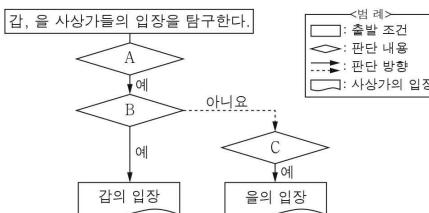
- [13 ~ 14]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둘음에 답하시오.

갑: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대응시켜 각각 나누어 말한다면, 칠정과 기(氣)와의 관계는 사단과 이(理)와의 관계와 같다. 사단은 이가 발(發)함에 기가 이를 따르는 것이다.
 을: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이니, 둘을 나누어 말할 수 없다. 사단을 이 위주로 말하는 것은 옳지만 칠정을 기 위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칠정은 이와 기를 겸(兼)하기 때문이다.

13.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갑: 이는 오직 발하는 까닭일 뿐이다.
- ② 갑: 사단은 본성이고 칠정은 감정이다.
- ③ 을: 이와 기는 모두 형태가 없다는 점이 같다.
- ④ 을: 사단의 연원과 칠정의 연원은 서로 다르다.
- ⑤ 갑, 을: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기를 탄 것이다.

12.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마음[心]은 신령스러워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천하의 사물에는 모두 이치가 존재한다. 나의 앎을 지극히 하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 을: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心即理]이다. 지극한 선은 마음속에서 찾아야만 하니,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제거하여 그 본체의 바름을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p>
(나)	<p>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탐구한다.</p>  <pre> graph TD A{A} -- 예 --> B{B} A -- 아니요 --> C{C} B -- 예 --> 갑의입장 B -- 아니요 --> 을의입장 C -- 예 --> 을의입장 </pre> <p>설명: A는 'A'와 'B'를 선택하는 노드입니다. A가 예라면, B는 '예'와 '아니요'를 선택하는 노드입니다. B가 예라면, 결과는 '갑의 입장'입니다. B가 아니요라면, 결과는 '을의 입장'입니다. C는 'C'를 선택하는 노드입니다. C가 예라면, 결과는 '을의 입장'입니다.</p> <p><별 레>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p>

<보기>

- ㄱ. A: 사욕을 제거하고 천리(天理)를 보존해야 하는가?
- ㄴ. B: 이치는 마음 안에뿐만 아니라 마음 밖에도 있는가?
- ㄷ. B: 이론적 학습을 통해 양지(良知)를 획득해야 하는가?
- ㄹ. C: 도덕적 앎[知]과 도덕적 행함[行]은 본래 하나인가?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4.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가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명칭은 반드시 일을 행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측은한 마음이 드는 데도 구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더듬어 보아도 인(仁)이라 할 수 없다. 밭을 차면서 내놓은 한 그릇의 밥에 수치심이 드는데도 받아먹는다면, 그 마음을 더듬어 보아도 의(義)라 할 수 없다.

- ① 사단을 일상에서 확충할 때 사덕이 형성됨을 간과한다.
- ② 사단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는 선한 감정임을 간과한다.
- ③ 측은지심은인이 내재함을 알려주는 실마리[緒]임을 간과한다.
- ④ 지속적인 수양으로 누구나 성인(聖人)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인간의 본성은 선악을 좋아하는 마음의 기호(嗜好)임을 간과한다.

15.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덕은 영혼의 건강함으로 좋은 상태인 반면 악덕은 영혼의 질병으로 허약함이다. 이성, 기개, 욕망이라는 영혼의 세 부분이 각기 지혜, 용기, 절제라는 덕을 갖추어 각자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여 조화를 이루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을: 덕에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있다. 실천적 지혜와 같은 지성적 덕은 교육을 통해 얻어진다. 또한 용기와 같은 품성적 덕은 중용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즉 용기 있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 ① 갑: 이성과 욕망은 기개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 ② 갑: 용기의 덕이 없어도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 ③ 을: 실천적 지혜가 없어도 중용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 ④ 을: 품성적 덕은 습관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 ⑤ 갑, 을: 덕이 무엇인지 안다면 반드시 덕을 실천하게 된다.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치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왕의 주방과 마구간에는 살진 고기와 말이 가득한데, 백성들은 굶주린 기색이 역력하고 들판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넘쳐 나니, 이것은 짐승을 물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 인의(仁義)를 해쳐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면, 그 자격은 박탈되어야 합니다. 왕은 차마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다스림[不忍人之政]을 펼쳐야 합니다.



- ① 왕은 인의가 아닌 형별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가?
- ② 왕은 백성의 뜻[民意]과 무관하게 교체되어야 하는가?
- ③ 왕은 백성의 안정된 생업[恒産] 유지에 힘써야 하는가?
- ④ 왕은 사적 이익만을 얻기 위해 권력을 사용해야 하는가?
- ⑤ 왕은 부국강병을 통치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17.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로 법이 없으며, 법이 없는 곳에는 정의도 없다.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도 지배권도 없으며, 내 것과 네 것의 구분도 없다. 평화를 추구하려는 본능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한 것이다.

을: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신탁된 권리이다. 그러므로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력은 여전히 인민에게 있다.

- ① 갑: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 주권은 분할되어야 한다.
- ② 갑: 자연 상태에서 구성원들은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할 수 있다.
- ③ 을: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지라도 구성원은 저항할 수 없다.
- ④ 을: 구성원은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에 모든 자연권을 양도해야 한다.
- ⑤ 갑, 을: 국가는 각 개인이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합의한 산물이다.

18.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을 가지고 있고,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욕망을 추구하되 일정한 한계가 뚜렷하지 않으면 다툴 수 밖에 없고, 다투면 혼란해지고, 혼란해지면 자연히 곤궁에 빠져들게 된다. 선왕(先王)은 이 혼란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의(禮義)를 제정하여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 <보기>
- ㄱ. 사람은 이익을 바라는 욕망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
 - ㄴ.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인위(人爲)의 결과이다.
 - ㄷ. 사람은 예로써 정해진 욕구 충족의 한계를 따라야 한다.
 - ㄹ. 사람은 타고난 본성[性]을 따를 때 혼란을 막을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19.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도(道)는 항상 무위(無爲)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통치자가 만일 그 이치를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저절로 교화될 것이다. 통치자가 일을 만들지 않고 무욕(無欲)할 수 있다면, 백성은 저절로 부유해지고 소박해질 것이다.

을: 덕(德)으로 정치하는 것을 비유하면,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고 모든 별들이 그것을 받들며 따르는 것과 같다. 통치자는 백성을 덕으로 이끌고 예(禮)로써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백성은 잘못을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바로잡게 된다.

<보기>

- ㄱ. 갑: 도덕규범을 확립하여 백성을 선하게 이끌어야 한다.
- ㄴ. 을: 통치자는 먼저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
- ㄷ. 을: 선악과 시비의 분별에서 벗어나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 ㄹ. 갑, 을: 통치자가 이상적인 정치를 하려면 도를 따라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① ~ ⑤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인간은 선택의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존재이며, 주체적 결정을 회피할 때 '죽음에 이르는 병'에 빠지게 된다. 인간은 신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

을: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이며,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인간은 그 자신이 세상에 내던져진 이상,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① 인간을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를 거쳐 절망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으며, ② 자신의 모든 것을 신에게 내맡기는 주체적 결단을 통해 참된 실존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을은 ③ 인간을 매 순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고 보았으며, ④ 인간의 본질을 정해 줄 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의지로 참된 실존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⑤ 합리적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의 보편적 본질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